

國 民 保 健 과 漢 藥

李 承 吉

유 생 당 약 국

Public Health and Oriental Drugs

Seung Gil LEE

Yusaengdang Pharmacy, Seoul, Korea

한약의 연구는 오늘날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일반 의사와 한의사제도가 병행되고 있으며, 구미 각국에서도 한약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명치개화기에 있어서 제도상 이것을 폐지하였음에도 지금은 다시 復興되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의약품에 관한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지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한약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이와 같이 계속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한약에는 현대의약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우수한 약효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温故知新 : 근래 항생물질, 자율신경안정제 등 많은 의약품의 발견은 현대의학을 팔목할만큼 발전 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들 약품자체가 가지는 독성이나 습관성 등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藥禍事故는 또한 세인을 놀라게 하는바 있고 그로 인하여 환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음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때에 한약은 참으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 주므로서 이러한 현대의약의 단점을 보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고혈압·노이로제 등 소위 문화병이나 만성 신장염과 같은 고질화된 질병들은 한약이 아니고서는 근치하는 방도가 매우 어려운 것이며 더욱이 合成醫藥品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습관성이나 탐닉성 등이 한약이 아니고서는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점이면서 또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약효로 말미암아 현대 의약의 효과에서 소외된 많은 환자 들이 한약에 의존하여 그들의

건강을 이어가고 있음은 필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한약이 이와 같은 약효를 發顯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두말 할 것도 없이 한약에는 현대 과학으로서 아직 가려내지 못한 더 많은 生理活性物質의 작용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한약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즉 이것을 科學化하고 現代化하여 그 의약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키므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임무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조상 전래의 우리 나라 토착약물을 民族醫藥으로서 다듬고 개발하는 민족적인 사명이라고도 하겠다.

草根木皮 : 한약의 현대과학적 추구는 의학적·약학적 양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우선 그 「證」이라는 것의 해명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 믿는다.

한방 의학에서 말하는 病像을 종합, 일괄하여 「證」이라하고 이것의 현대 의학적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의학은 金·木·水·火·土 등의 막연한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약의 약리작용 또한 그만큼 빨리 구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理中湯을 투여할 때 우리는 胃部를 눌러서 동통을 느끼던 부위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목표점으로 하여 理中湯을 투여할 때에는 소화불량증이 낳을 수 있고 설사병이, 좌골신경통이, 늑간신경통이 낳을 수 있으며 가슴이 더질것 같은 팽만감이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胃部를 누르면 어찌하여 통증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먼저 설명되어야만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理中湯의 약리작용의 해

명도 그만큼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약리작용의 구명에 있어서도 單味成分의 추출과 그 생리작용의 추구는 이미 계속되어 오는 작업이며 이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많은 현대적 의약품을 갖이게 되었으나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좀더 총체적인 작용과 인체의 생리기능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面으로 돌려져야 하며 특히 한방치방이 어떠한 기전으로 말피아마 한방적 「證」과 대응하고 있는가를 구명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陰陽五行: 보도된 바에 의하면 5월 12일(1972) 일본 약제사회연맹 약제위원회에서는 한방치방의 「證」에 대해서 검토하게 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는데 이는 바로 일본의 약사들이 이미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연구를 시작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한약에 대한 이러한 과학적 추구는 一朝一夕에 이루어질수는 없는 거창한 과업이겠으나 현대 의학의 발굴이 벽에 부딪친 感을 주는 오늘날 한약의 연구는 현대 약학이 새로운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즉 우리는 여기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한의사·약사의 총력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의사나 약사를 막론하고 한약을 연구하는 인사들은 따르히 漢方士라는 칭호로 호칭하자는 제안이 있다는 소식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통감한데서 나온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의사나 지식층인사들의 한약에 대한 물이해와 부정적태도 그리고 보건계인사들 사이에 있어서의 배타의식 등으로 말피아마 이러한 과학화작업이 담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니 모름지이 의사는 한약의 사실상의 약효를 인정하는 과학자적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하며 한방계인사들은 陰陽五行만 되풀이 하는 고루성을 버리고 현대인을 이해 시킬 수 있는 현대적인 설명방법을 연구하여야 되겠고 또한 한약연구에 뜻둔든 모든 과학자들이 한데 융합 협조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배타적 의식에서 벗어나므로서 하루속히 진지한 한약연구의 기운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國民保健과 漢藥: 우리 나라 국민이 그들의 보건제를 한약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통계에 의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자료는 보건 사회부 醫政白書(1971), 藥政白書와 김인수: 국민의료수혜상황연구 연세대는문집(1971)에 의거함.

현재 우리 나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한의원의 開設數는 2,443, 의원수가 5,402 개소인 것에 비하여 그 약 반수에 가까운 수를 나타내고 있다(표 I).

전국 한약중상의 수는 3,720으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그 분포상황이 약국의 분포상황과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표 II).

의료기관에 가는 회수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종합 병원이나 개인의원을 찾는 家口數와 각각 같은 정도의 가 구수가 한의원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고(표 III) 의

표 I. 의 료 기 관 분 포 상 황 (1970. 12. 31)

시도별	의료기관	종	합	병	원	의	원	치	과	한	의	원	의	무	실	요	양	소	보	건	소	합	계
		명	원																				
서	울	8	60	2,133	698	1,044	50	2	9	4,004													
부	산	1	29	553	119	199	16	1	6	924													
경	기	—	23	520	95	282	17	2	25	964													
강	원	—	21	182	34	81	3	—	19	340													
충	북	—	5	151	22	104	4	—	12	298													
충	남	—	11	330	174	202	—	1	17	635													
전	북	—	12	212	35	80	3	—	16	358													
전	남	—	21	402	58	74	—	1	26	582													
경	북	2	21	596	135	236	17	3	33	1,033													
경	남	—	17	286	67	134	17	—	26	537													
계	주	—	3	37	7	17	—	—	3	57													
합	계	11	223	5,402	1,344	2,443	107	10	192	9,732													

자료: 보건사회부 의정백서 (1971년도)

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도시민은 병원이나 의원에 의존하는율이 높고 지방민은 한약에 의존하는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Ⅳ).

표Ⅱ. 약국 등의 분포 (1970. 12. 31)

시도별	업종 약국	약종상 한종	약한	약종상	합계
서울	3,791	60	146	3	4,000
경기	753	503	415	174	1,845
강원	260	291	274	69	894
충북	171	227	273	117	788
충남	398	493	451	132	1,474
경북	862	474	786	299	2,417
경남	316	617	317	291	1,541
부산	773	79	133	8	993
전북	367	267	319	74	1,027
전남	694	549	577	135	1,955
제주	54	64	29	16	163
합계	8,439	3,624	3,720	1,314	17,097

자료 : 보건사회부 약정책서 (1971년도)

이상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국민이 그들의 보건문제를 한약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양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한약이 현실적으로 그만큼 큰 영향을 국민보건에 미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게 된다(표Ⅴ).

표Ⅲ-1. 의료기관에 가는 회수

종별	회수 5회 이상	3~4회	1~2회	0	회수합계
종합병원	7	6	40	170	53
개인병원	15	15	56	137	86
한의원	12	11	39	161	62

표Ⅲ-2. 약국에 가는 회수

종별	회수 10회 이상	5~9회	2~4회	1	0	회수합계
근처 약국	40	63	74	6	40	183
한약방	1	8	16	17	181	42

비고 : 1) 표본 223가구, 2) 1970년 3월 한달간

표Ⅳ.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

기관별	지역별	가 (100)	나 (223)	다 (472)
종합병원	원	200,000(51)	505,300(50)	354,020(134)
	원	149,700(42)	123,600(70)	350,550(198)
	원	89,800(33)	141,430(57)	302,500(161)
	계	439,500(64.1%)	799,300(59.2%)	1,007,070(44.7%)
근처 약국	국	168,500(88)	308,745(127)	427,780(308)
	국	47,600(35)	101,825(105)	205,150(150)
	방	29,800(21)	118,350(43)	411,350(159)
	계	245,900(35.9%)	528,920(40.8%)	1,044,280(55.3%)
총	계	685,400 (100%)	1,298,250 (100%)	2,251,350 (100%)

비고 : 1) ()는 이용 가구수, 2) 단위는 원

표Ⅴ-1. 양약이 한약보다 우위라는 이유

지역별 의견	가 100가구	나 223가구	다 472가구
효과가 빠르다	18(26.1%)	88(56.4%)	247(63.0%)
병이 잘 낫는다	13(18.9)	14(9)	40(10.2)
약값이 싸다	19(27.5)	12(8.0)	19(5.1)
먹기가 편하다	19(27.5)	42(26.6)	86(21.7)
계	69(100%)	156 (100%)	392 (100%)

표Ⅴ-2. 한약이 잘 듣는 경우

지역별 약종류	가 100가구	나 223가구	다 472가구
감기약	5(6.2)	12(8.0)	82(21.4%)
위장약	15(18.7)	18(12.0)	28(7.3)
전염병 및 기생 충약	6(7.5)	2(1.3)	10(7.6)
피부병약	4(5.0)	3(2)	17(4.4)
보약	50(62.6)	115(76.7)	245(64.3)
계	80(100%)	150(100%)	382(100%)

漢藥의 改善 : 한약이 보다 유효하게 사용되고 국민 보건에 참다운 기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시정하여야만 할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첫째 : 한약제의 규격이 제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市中에서 거래되는 한약제는 한심스러운바가 있으며 도저히 의약품으로서의 사용할 수 없는 低質品이 합부로 거래되는가 하면 품귀를 이루는 약제에 있어서는 고의로 변질품을 혼합하거나 합부로 소품물의 흡수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예마져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危害를 주는 중대한 문제로서 時急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대책으로는 먼저 의약품으로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규격이 정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한약제제에 있어서의 품질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한약의 약효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 투약방식은 마땅히 改良되어야 할 것이다.

처방이 결정된 후 비로서 약을 조합하고 다시 60분간을 기다려야만 복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무래도 전근대적인 것이다.

만성질환에 있어서 장기간을 조석으로 약을 다려 먹는다든 것도 바쁜 현대생활에 있어서는 용이한 일이 아니며 더구나 集團生活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석으로 피우는 한약의 내용새가 이웃사람들에게 폐가 된다 하여 한약의 복용을 기피하는 예도 허다한 것이다.

한약은 좀더 복용하기 편리하도록 그 제형이 현대화 되어야만 한다.

제형의 현대화란 한약제제의 개발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그 제형으로는 정제·산제·액제·고제 등을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은 각각 한약처방 그대로의 복합제제와 각약제의 單味製劑를 만들어서 조제시에 적당량을 평취 조합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이들 제제의 개발은 비단 복약시의 편의뿐만 아니라 그 약품에 함유되는 유효성분의 일정화로 말미암아 약효에 대한 신뢰성과 따라서 그 가치를 향상시키게 되는 물론 한의학 자체의 연구에도 정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약제제의 연구 개발은 약학을 전공한 약사들 손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겠거니와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한방처방이 錠劑로 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빨리 이방면의 연구에 약사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본다.

셋째 : 한약의 실제적인 효과의 유무를 측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약의 연구는 결국 그

속에서 질병치료에 유효한 약품을 인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古書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이 모다 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추시를 통해서 考證,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小兒의 경련성질환에 대해서 靈砂의 분말을 百會穴에 바르는 방법 등은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극히 의심스러울바가 있는 것이며 西南方으로 가서 木姓을 갖인 사람의 약을 먹으면 병이 낳겠나던가 하는 것으로 논의로 하더라도 몇月몇日生이니까 附子를 써도 좋고 몇月 몇日生이니까 附子를 써서는 않된다 등의 약물적 용방법은 한방 료법의 원칙이 많일 것이니 그 이론의 개연성만 가지고 그대로 치료방법으로 확정짓고 환자를 우롱하는 예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取捨選擇의 妙를 발휘하고 정계적으로 그 유효성을 조사하는 작업이 앞서야 할 것이다.

한약의 과학화란 요컨대 객관성을 주어주자는데 있는 것인즉 神秘性만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분류하는 태도가 한약을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첫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 秘方이라는 용어는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며 국민보건이나 한약연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의약품에 있어서 그 사용하는 약제는 약효가 공인된 것으로 되어야만 하고 또한 그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여야만 할 것이다.

현대의약이 철저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는 반면에 한약에서는 본질을 알 수 없는 물질을 가지고 비방이라는 명목아래 국민을 농락하는에는 허다하며 이로인해서 국민보건상의 피해 또한 적지않은 것이다. 그것이 국민보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특허제도를 적용해서라도 의약품으로서의 품질과 가치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 우리 나라 국민의 보약에 대한 개념도 시정되어야 한다.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민이나 지방민을 막론하고 각각 50% 이상이 한약의 효과는 보약이 우수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것은 한약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인 것이며 한약은 본래 補藥과 瀉藥의 2種으로 나뉘우며 이들이 모다 질병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神仙流醫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덮어 놓고 건강해지는 보약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한약이 오용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보약 뿐이 아니라 모든 한약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의 효과가 현대의 약을 능가한다는

點을 실증하므로써 한약의 운명이 일부 부유층의 사치를 위한 약으로 전락케 하지 말고 萬病의 치료약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큰 것임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論述한 바 한약의 의약품으로서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였고 다시 이것을 더욱 가치있는 것으로 만들고 참다운 국민보건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저장 나름으로의 견해를 밝히었다.

結 論

한약의 과학화와 국민보건을 위해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치료에 큰 위치를 차지하는 한약의 연구는 가장 적합한 약의 전공자인 藥師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분야가 개척 전개되어야 하며 그것은 항상 한방적으로 관찰 포착되는 病像에서 遊離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약을 연구하는 약사는 마땅히 그 病像 다시 말해서 「證」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證」과 한방치방의 연결점을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漢藥科學化를 위한 연구란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 단언하고 싶다.

따라서 약학대학에 있어서도 이 「證」과 한방치방의 연결점을 교수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며 현재의 교수내용은 이 點에 있어서 강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다음은 개국약사의 경우에 있어서 한약을 조제투약

할 때 脈狀에 대한 관찰은 약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므로써 왕왕 부정확한 투약을 감행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본래 약학이란 의학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을 뿐더러 특히 한약은 같은 처방이라 하더라도 「證」에 합치될 때에 限해서 약효가 발현된다는 點에 그 특수성이 있는 것이며 그 「證」 속에는 脈狀이 포함되어 있는 고로 脈狀을 참작치 않는 투약은 왕왕 誤投를 하게 되겠기에 그러한 투약이 과연 국민의 보건을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藥師면 누구나 투약할 수 있는 대한 약전 2부에 수제된 葛根湯을 예로 들면 脈浮, 項背強, 無汗의 三症候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葛根湯證인진대 이때 脈浮를 除外한 나머지는 葛根湯證이 아닌 것이다. 葛根湯證아닌 것에 대해서 葛根湯을 투여하면 역효과를 일으킬 것은 정한이치이며 만일 그로 인해서 불상사가 야기 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일까.

그러므로 한약을 투약하는 약사는 모름지기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에 투철한 자세로서 脈狀에 관한 관찰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되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참다운 의미에서 국민의 보건을 위하는 길일 것이며 과학적인 한약을 형성해 나가는 첫거름이 되는 것이고 환장과 더불어 장기 장신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길이 됨을 알어서 어디까지나 원칙에 입각한 정확한 투약을 하는 풍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